



”
진실보다 다정할 거짓에게

Call of Cthulhu 7th edition

Portrait of Replica

Fan Scenario w. 나오

「입 맞춰주세요, 나의 신부님.」

제작: 나오 (@M3_Wor1d)

시나리오 카드: 조랭님 커미션(@johnzo_)

공개 배포 기한: ~19.12.24



시나리오 정보

- 인원: KPC1+PL1 타이만
- 배경: 현대(개변 가능)
- 예상 플레이 시간: 약 2시간 이내(채팅 플레이 기준)
- 키퍼링 난이도: ★★★☆☆ (애드리브 필요)
- 플레이 난이도: ★★☆☆☆
- 추천 기능: 관찰, 오컬트
- 전투 없음, 롤플레잉 위주
- 플레이 중 감정선이 상당히 예민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반드시 플레이 전에 이 점을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롤플레잉 위주의 시나리오이지만 RP파트가 많지 않아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습니다.
- KPC와 PL 캐릭터가 서로에게 로맨틱한 ‘이끌림’을 느끼고 있음을 전제하지만 그 사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며 일명 병든 사랑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며...

- 본 시나리오는 CoC(크툴루의 부름) 수호자 룰북을 기반으로 작성된 비공식 팬메이드 타이탄(KPC+PC) 시나리오이며, 하우스 룰 및 신화 생물에 대한 자체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나리오에서 탐사자는 신부/수녀(성직자)로, KPC는 악마로 역할이 고정되며, 이에 따라 신성 모독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시나리오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스크립트가 있으며, 힐링 시나리오로 속이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모독적이며 비도덕적인 관계에 대한 묘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취향 소재가 있으므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 KPC와 PC 간의 관계에 따른 스크립트 개변은 자유롭게 허용합니다만, 본 시나리오의 진상에 대한 개변(기믹, 신화생물에 관한 개변)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 무료 배포 시나리오인 만큼 금전 거래를 전제로 한 키퍼링 커미션을 통해 플레이 하는 것을 금하며, 공개된 곳에서 시나리오를 플레이 하거나 중계하는 활동은 금합니다.
- 본 시나리오에 대하여 멘마 시나리오 등 비방 발언은 지양하여 주십시오.
- 본 시나리오에 대한 직접적 스포일러/공개적인 중계 등의 사실 발각시 지인제화 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의 약칭은 「모조초상」입니다.

개요

깜빡, 깜빡, 느리게 깜빡이는 눈꺼풀에는 아직 기묘한 줄음이 묻어납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감각,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들여다보는 착각...

제 발의 반쪽이 여전히 수마에 깊숙히 빠져있는 것만 같아요.

“나의 종, 나의 아이, 나의 신부.”

머릿 속에 직접 울려퍼지는 목소리에 눈꺼풀 너머의 흐릿했던 공간을 응시하면,

점차 또렷해지는 시야 안으로 빛무리에 감싸인 인영이 보입니다.

하얗게 볼을 감싼 미사보 사이로 보이는 분홍빛 뺨,

순결함 만큼이나 티끌 없이 내려 앉은 발끝까지 감싼 희디 흰 옷가지,

그림자조차 없이 십자가를 등지고 선 인영은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어옵니다.

“나의 탐사자.”

이하 내용은 KP를 위한 정보입니다.
플레이를 원할 경우 스크롤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0. 진상

탐사자는 성직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신에 대한 사랑과 진심만이 절대적입니다. 다른 이에게 품는 사랑의 감정은 제한적이죠. 하지만, 사랑에 대해 단 한 번의 고민을 하지 않아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 들 때마다, 사랑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죠. 사랑이란, 결국 무엇인지 또 신께서 옳은 것이라 이르신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안타깝지만, 사랑에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어디까지가 신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는 사랑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성직자로서 늘 아슬아슬하게 제 마음을 덮으며 잘못되지 않을 공평한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노력할 뿐인 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KPC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그 시련이었어요.

그의 유혹적인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느낀, 헛갈릴 수 없는 선명한 감정은 탐사자의 마음을 온통 해집어 놓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불이 붙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눈과 생각이 자꾸만 그를 따라다녔죠. 아아, 부정할 수 없는 뜨거운 연심은 감추려 들 수록 더욱 커지기만 했어요.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제 자신은 KPC를 떠올리고 보고싶다고 느끼고 마는 걸요? 그러나 그 감정을 지켜보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탐사자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탐사자는 제가 저지르고 만, 신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연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무엇이 되었던, 잘못이 되고야 말 거예요. KPC를 사랑스럽다 여기는 것 그 자체로도. 그저 애써 제 마음에서 자라나는 감정을 모른척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KPC는 자꾸 도망칠 뿐인 탐사자의 사랑에 욕심이 났습니다. 이대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의 사랑이 그의 신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정녕 그래야만 한다면, 그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신께서 도와주셨어야 했겠죠. 아아, 이토록 매정할 수는 없어요.

신에 대한 반발은 사악한 존재를 KPC의 곁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

“너를 탐사자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노라,” 고.

0-1. KP노트

KPC에게 손을 내밀어 온 사악한 존재의 정체는 니알라토텐이었습니다. 그는 KPC의 영혼을 대가로 요그 소토스의 공간 중 하나를 빌어 탐사자의 눈을 속일 ‘성전’을 꾸며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만큼은 KPC는 절대적인 존재인 양 굴 수 있겠죠. 그래요, 그리 바라던대로 KPC는 탐사자가 사랑하는 존재, 탐사자의 유일신이 되었습니다. 비록 영혼을 대가로 바친 탓에 사실상 ‘악마’적인 존재에 가까워진데다 탐사자가 믿는 기존의 유일신이 간섭할 수 없는 공간에 제한되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이 될 것입니다. 탐사자가 믿는 신은 애초에 KPC가 아니니까요. KPC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탐사자가 거부하면 끝이 날 일이에요. 거짓말의 끝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한 탐사자의 올곧은, 신만을 은혜하는 그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봐주는 걸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어 제가 그의 우상밖에 될 수 없을 지라도, 지금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될 수 없는 신에 대한 맹세, 그 맹세가 꼭 사랑을 약속하는 결혼과 닮은 것 같다 생각하며, KPC는 탐사자가 이 지독한 거짓말에 발이 묶여버리길 기도드릴 수 없는 신께 기도합니다.

시나리오에서 KPC는 금기된 색욕에 해당되는 죄악의 악마이자 탐사자의 유일신입니다. 니알라토텐은 KPC를 탐사자의 유일신으로 만들기 위해 탐사자의 기억을 억누릅니다. 얼굴을 보더라도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거의 마지막까지 미사보(베일)를 쓰고 있기도 하니까요. 플레이를 위해 KPC의 인장을 준비하신다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형태를 하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하나 준비해주심이 좋습니다. 꼭 두 가지 버전의 그림 프로필이 아니더라도 즐거움으로 남겨두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름 역시 초반엔 블라인드 처리해주세요.

PL에게도 탐사자가 KPC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언질 주세요. 더불어 탐사자는 '성직자'로써 7대 주선에 따라 순결을 유지하여야 함을 사전에 떠올리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탐사자에게 사랑은 죄가 됩니다.

끝으로, 본 시나리오에는 유일신에 대한 사타니즘적인, 상당히 악의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신성모독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언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부름

깜빡, 깜빡, 느리게 깜빡이는 눈꺼풀에는 아직 기묘한 졸음이 묻어납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은 감각,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들여다보는 착각...

제 발의 반쪽이 여전히 수마에 깊숙히 빠져있는 것만 같아요.

“나의 종, 나의 아이, 나의 신부.”

머릿 속에 직접 울려퍼지는 목소리에 눈꺼풀 너머의 흐릿했던 공간을 응시하면,

점차 또렷해지는 시야 안으로 빛무리에 감싸인 인영이 보입니다.

하얗게 볼을 감싼 미사보 사이로 보이는 분홍빛 뺨,

순결함 만큼이나 티끌 없이 내려 앉은 발끝까지 감싼 희디 흰 옷가지,

그림자조차 없이 십자가를 등지고 선 인영은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어옵니다.

“나의 탐사자.”

[정신력] 판정 후 실패 시 불가항력으로 인영에게 손을 뻗습니다.

잡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이후 파트가 진행됩니다.

그 모습에 손을 잡으려 들면,

어느덧 빛을 내뿜는 것만 같았던 인영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고,

시야에 암전이 찾아옵니다.

어둠에 적응한 시야 앞에는 방금 전까지의 성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 등 뒤로 막혀있는 벽이 느껴지고, 앞으로 펼쳐진 복도가 아득하게 보입니다.

[관찰력] 판정, 그 외/실패 시 생략

탐사자는 복도의 너머로 희미한 빛을 발견합니다.

뒷걸음질 칠 공간의 부재는 탐사자의 걸음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복도로 내몰니다.

정면을 제외한 방향감을 상실한 채 발걸음을 딛으면,
고요한 복도의 침묵 위로 탐사자의 걸음이 내는 소리가 덧씩워집니다.

저벽, 저벽,
메아리치는 발소리 앞에서 탐사자는 문득 제가 빛무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복도를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기나긴 어둠을 끝맺고 복도를 희미한 빛으로 채웁니다.
그 희미한 빛을 받은 성물로 보이는 [조각상]들도 탐사자의 눈에 들어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알록달록한 스테인드는 긴 복도의 양쪽을 장식합니다.
성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이죠.
보통 성인의 모습이나 성서의 말씀을 표현해두곤 합니다.

7개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투과된 희미한 빛이 유화처럼 선명한 그림의 모습을 빔냅니다.
천천히 살펴볼까요?

전개를 위해 순서대로 출력합니다.

- 첫번째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검붉은 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 두번째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바다뱀이 휘감은 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 세번째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검보라색 불꽃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 네번째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담배연기와 얼음안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 다섯번째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돈자루 위의 금괴 십자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 여섯번째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파리 날개 위의 해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 일곱번째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검은 가시에 얹매인 심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둘러보면 [지식] 또는 [오컬트] 판정, 실패 시 지문 생략

탐사자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진 그림들이 7대 죄악과 관련이 있음을 눈치챩니다.

[조각상]

조각상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온통 하얗습니다.

신이 보시기 좋기 위해 만든 물건이 스테인드 글라스로부터 새어들어온 어슴푸레한 빛을 받아 빛납니다.

신을 본따서 만든 것이겠죠.

[관찰력] 어려운 판정, 그 외 생략

탐사자를 바라보는 조각상은 모두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본 뜬 것처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조각상을 모두 둘러보면,

쨍그랑, 갑자기 어디선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 썩은 것만 같은 끔찍한 냄새가 콧속으로 번집니다.

꺼질 일이 없을 것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불이 공간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회피] 판정, 실패 시 HP -1d3 부상 후 이후 파트 진행

부상은 다이스 수치에 따라 약간 그을리거나 불이 몸에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2. 세례

번지는 불길은 잡을 틈 없이 공간을 집어 삼킵니다.

겨우 불길을 피해 도망치기를 한참,

탐사자는 제 앞에 거대한 강이 놓여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강은 불길을 피해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감탄이 우선될 만큼 밑바닥이 보이도록 맑고 투명합니다.

달빛의 어슴푸레한 빛조차 그 아름다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가장자리에는 다행이도 배가 한 척 보이네요.

짚으로 만들어진 배는 믿음직스러워보이지 않습시다만, 한 번 정도는 강을 건널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 위험에서 벗어나는 편이 좋겠죠.

배를 물로 밀어 몸을 실으면 탐사자는 다시금 고요한 침묵과 마주합니다.

밀면 밀어진대로 강의 중심부로 나아가던 배가 움직임을 멈추면,
탐사자는 물의 표면에 파문이, 수 많은 파문들이 번져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머릿 속을 울리는 개굴거리는 소리는 물 속에서 끓어오르기라도 하는 듯한 착각을 심어줍니다.

개구리는 거품처럼 수면 위로 뛰어오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리 하려 드는 것처럼.

배 위까지 개구리들이 뛰어오르면, 믿음직스럽지 않던 배는 크게 흔들리다 이내 벋짚의 형태로
흘러지기 시작합니다.

맑았던 물은 어느새 붉은 빛이 감돌고 진득하게 흐려집니다.

마치 사람의 피를 끝없이 풀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핏빛 물속으로 한 없이, 한 없이... 탐사자의 몸이 떨어집니다.

“신부님,”

저를 부르는 울림있는 목소리.

탐사자는 이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부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울곧게 자신을 담았던 눈,

그 눈에 담긴 감정을 애써 모른척 해보지만 사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진심을 다 하도록 만들어 놓았잖아.”

그는, 그이는 당신을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 감정은 분명 죄가 되지 않을 감정이지만, 자신에게는 해가 될 감정입니다.

애써 모른척 하는 감정, 신께서 제게 허락치 않을 감정—

하지만, 제 안에서 분명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감정.

그 감정의 이름은 선명한 빛을 띄어 외면할 수 없어요.

“말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들어가는 것만 같은 눈동자 속의 갈망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은 그는,
그대로 당신을 끌어 안고서...

갑작스럽게 숨이 폐부로 흘러들어오는 감각은 제법 소름이 끼칩니다.
피비린내가 선명한 물 속에서 당신을 건져올린 이의 얼굴이 미사보의 움직임에 언뜻 드러납니다.

[지식] 일반 난이도 판정, 그 외 생략
탐사자는 그 얼굴이 복도에서 본, 신을 본판 조각상과 닮아 있음을 떠올립니다.

“정신이 들어요? 탐사자—”
제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낮익은 것입니다만,
어디서 만난 이의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내가 있으니...”
검게 타들어간 베일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 속 타들어가는 것 같은 감정,
순결을 닮았던 희디 흰 옷가지의 종착은 핏빛,
그림자조차 지지 않았던 육신은 핏물이 엉겨붙어 질척입니다.

어느새 다다른, 강 한 가운데의 물은 꼭 탑과 같은 모습입니다.
물에서 당신을 건져낸 그는 세례를 하듯 손끝으로 당신의 이마를 쓸어주고서 당신의 손을
이끍니다.
깊고 깊은 목구멍을 벌리고 있는 탑으로.

[관찰력] 어려움 판정,
어려운 성공 시,
탑은 회색의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그리 높지 않으며 검은 색의 가시에 얹매어 있습니다.
그 외,
희미한 빛 속에 탐사자는 돌로 된 탑의 모습을 간신히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탐사자는 탑의 깊은 어둠 속으로 집어 삼켜져 갑니다.

3. 잠식

탐의 어둠이 고요한 침묵과 섞여 무겁게 내려앉으면,
제 손을 이끄는 힘이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음에도 탐사자는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길’은 이쪽이에요, 탐사자.”

그는 당신을 안심시키려는 듯이 당신의 손을 토닥이고는 다시금 산산조각나 빛무리로 사라집니다.

딱 발을 디딜 만큼의 공간만을 희미한 빛이 탐의 최하층까지 이어진 듯한 나선형의 계단을 비추면,
그 그치지 않는 회오리 같은 모습에 약간의 현기증을 느낍니다.
발걸음 아래로 남는 것은 붉은 질척임입니다.

제 발걸음으로 이루는 탐 최하층으로의 추락,
그것이 꼭 물 속에 떨어지는, 익몰과 닮았다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가라앉고, 가라앉고, 가라앉은 끝에 탐사자는 자신이 성전과 비슷한 공간에 들어왔음을
알아차립니다.
주변은 제법 밝아졌지만 여전히 고요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당신 한 사람만 존재하는 듯한 적막은 사고를 좀먹습니다.

눈 앞의 조출한 성전은 한 눈에 공간의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회색의 삭막한 벽이 서로 가까이 기댄 탓에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는 [십자가상]과 [성물] 정도입니다.

[십자가상]

십자가 상은 성전의 삭막한 회색 벽 한 가운데 매달려 있습니다.
한 눈에 봐도 제법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매달려도 거뜰할 법한 크기의 나무로 된 조형은 어쩐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십자가상으로 향하는 길이 거의 다 녹아가는 초들로 밝혀져서인지 스산함도 더해집니다.

[지식] 또는 [오컬트] 판정

성공 시,

탐사자는 십자형의 구조물이 역방향으로 뒤집혀 놓여 있으며, 이것이 사타니즘의 상징임을 깨닫습니다.

실패 시,

탐사자는 십자형의 구조물이 역방향로 뒤집혀 놓여있다는 사실만을 알아차립니다.

[성물]

촛불의 불빛 아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성물은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표정 없는 조각상입니다.

감정없는 눈동자가 탐사자에게 머물습니다.

모두 같은 얼굴을 한 조각상,

탐사자는 그 얼굴에서 익숙함을 느낍니다.

그 눈동자는, 그 얼굴은

분명히 당신이 알고 있는, 기억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깊은 강에서 끌어낸 그의 얼굴을 분명히 닮았어요.

탐사자는 문득 물에 잠겼을 때 자신이 본 환영을 떠올립니다.

자신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던 입술,

타들어가는 ‘감정’으로 자신을 보는 눈,

그의 부르는 이름은 분명...

사람만한 크기의 성물 뒤 쪽으로부터 눈에 들어 온 문의 모습이 당신의 사고를 끊어 놓습니다.

문을 열려면 일단 석상을 움직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근력] 판정 후, 실패 시 성물이 깨져 [행운] 판정 후 HP(0/1) 감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성물이 치워지자, 문은 소리조차 내지 않고 열립니다.

[관찰력] 판정, 실패 시 생략

탐사자는 제 뒤로 넘어가는 문 위로 새겨진 ‘성체 조배실’의 글자를 봅니다.

그림자의 이면을 숨긴 공간을 연 것은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의 탐사자.”

3-1. 조우

빛의 침묵을 단 하나의 광원이 깨트립니다.

그 광원은 의지를 가진 것처럼 공간의 한 부분을 비춥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이면 그곳에는 언제나의 그 남자가 티없이 밝은 빛 아래에서도 그림자 하나 없이 서있습니다.

영겨붙었던 피는 모두 말라버린 탓에 남자의 옷은 온통 검은 빛입니다.

베일처럼 드리워진 검은 미사보 아래의 표정은 미소를 띄고 있지만 어딘가 공허합니다.

당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남자는 당신과의 거리를 좁혀옵니다.

“사랑해선 안된다는 말은 이제 잊어요.”

“사랑은 죄가 되지 않을 테니까.”

지척까지 다가온 남자의 두 눈동자,

제게 사랑을 말하는 입술,

아아, 그이의 이름은 분명히...

“사랑해요, 나의 신부님. 당신을 사랑하는 KPC, 이곳에 있어요.”

KPC였어요.

그 이름의 울림을 탐사자는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정녕 내가 아닌 당신의 유일신만을 사랑해야 한다면,”

“내가 당신의 유일이 되어야만 했으니까.”

당신의 유일신이 없는 세계, KPC가 대신 유일신이 되려 하는 세계.

생각해 본 적 없는, 제 안의 세계관이 뒤섞이는 감각은 어지럼증을 동반합니다만, KPC는 그에게 신경쓰지 않는 기색입니다.

그저, 탐사자의 불을 떨어지는 꽃잎에 닿는 일인 양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KPC는 입을 엽니다.

“... 내 사랑을 감히 지금도 외면할 수 있다면,”

숨결이 닿을 거리,

욕망에 가득 찬 입술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KPC는 한글자 한글자 제가 뱉는 말을 씹어냅니다.

“말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없노라고.”

“내가 당신의 주로, 당신에게 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령 KPC가 당신의 유일신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감히 당신의 유일이 되지 못할 거예요.

드디어 RP 구간입니다. 엔딩분기점이 포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RP가 적은 시나리오인 만큼 이 구간이 처음이지만, KPC의 존재를 알고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다소 다급합니다. KPC는 제 영혼을 갇아먹어서라도 사랑하려 한 스스로를 자조하고 경멸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4파트를 위해 재미로 남겨두셔도 좋으며 “사랑”이 죄가 될 수 없음을 떠올려주세요.

본 시나리오에는 두 가지 True Ending 이 존재합니다.

KPC를 유일신으로서 받아들인다... 엔딩 A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행부 4

4. 나의 악마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를 유일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편이 쓰라려 오는 것은,
자신도 그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겠죠.

“... 당신답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의 유일이 될 수 없겠죠.”

KPC는 탐사자를 보며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입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시선이 드디어 마주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둠에 가려져있던,
KPC의 몸을 감싼 검은 빛의 가시넝쿨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시넝쿨은 KPC의 심장부를 중심으로 KPC의 몸을 휘감고 있어요.
KPC의 미소 아래는 얇은 고통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랑했어요, 나의 신부님.”
“감히 당신의 신이 되려 할 만큼.”

KPC의 몸은 점차 색이 옅어 집니다.
그의 머리 끝부터 점차 투명하게 변해갑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입맞춰주면 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을 눈동자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그래요, 당신이 KPC가 유일신인 이 세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곳에 더 이상은 존재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별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KPC도 알고 있겠죠.

그렇기에 KPC는 당신의 손을 잡고 간원합니다.

이별을 고하는 입맞춤을 청하며——

마지막 RP 구간입니다. 동시에 엔딩 분기점입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탐사자의 몫입니다.

입을 맞춘다… 엔딩 B

입을 맞추지 않는다… 엔딩 C

5. 결말

[엔딩 A: 사랑하는 나의 신]

당신의 사랑이 죄가 되지 않을 장소가 이곳임을,
탐사자는 인정하고 KPC의 손 안에 오롯이 담깁니다.

당신의 신을,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은 양 가슴 한 켠에 뜨거운 감각이 느껴집니다.
타들어가는 것만 같은 감정의 흐름입니다.

“나의 신부님,”

그 감각이
거칠게 뛰는 심장의 소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닿아 있는 곳에 물려드는 피의 감각과 함께 하고 있음을,
당신은 이제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다해 사랑할게요.”

KPC는 세례를 하듯 당신의 이마에 지긋이 제 입술을 내리누릅니다.

베일 너머로 가려져있던 눈동자에 맺힌 것은
그 어떤 욕망보다 순수한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죄가 되지 않을 거예요.

-True Ending 1-

KPC/탐사자: 로스트

[엔딩 B: 사랑하는 나의 KPC]

입을 맞추면,

그토록 거부했던 것과 달리 입맞춤은 어쩐지 달콤한 뒷맛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입맞춤,

KPC는 짧은 입맞춤을 뒤로 하고 당신의 눈을 마주치고 웃어보입니다.

“이것으로 됐어요. 정말, 충분해.”

흐르지 않는 감정이 KPC의 눈 안에 가득 고여 있음을,

당신은 애써 외면합니다.

“안녕, 탐사자.”

“안녕.”

꿈에서 깨어나는 것만 같은,

배경이 온통 멀어져버리는 감각은 아찔합니다.

동시에, KPC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확신 어린 예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눈을 뜨면, 낮 익은 천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의 신이 가득한 당신의 방...

당신만이 깨어난 방.

그 안에서 당신은 KPC와 입맞춤을 나눈 제 입술을,

어느덧 흐른 눈물에 젖은 제 입술을 어루만지며 기도를 올립니다.

신이시여—

바라건대, 그에게 다음 생애가 있다면,
그 때에는 내가 그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True Ending 2-

KPC: 로스트

탐사자: 생환

[엔딩 C: 사랑하는 너의 순수]

“옳은 선택이에요, 탐사자.”

“순수하고도 순결한 당신을, 나는 사랑했으니까.”

흐르지 않는 감정이 KPC의 눈 안에 가득 고여 있음을,
당신은 애써 외면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만 같은,
배경이 온통 멀어지는 듯한 감각은 아찔합니다.

동시에, KPC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확신 어린 예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눈을 뜨면, 낮 익은 천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의 신이 가득한 당신의 방...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을, 당신은 알 수 있어요.

나쁜 꿈이라도 꾸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Normal Ending-

KPC: 로스트

탐사자: 생환

(KPC와의 기억을 잃습니다.)

6. 추신

어느덧 19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악마와 성직자 사이의 사랑이라면 재밌지 않을까? 에서 시작한 시나리오인데, 많은 분들의 KPC가 악마라면 참 좋겠다는 성원으로 감히 유일신이 되려 한 KPC의 비틀린 사랑이야기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도 죄악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네요... 사랑은 주관적인 것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기에 어떤 것이 죄가 되지 않을 범주인지 떠올린다면, 잘 떠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즐거운 플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